

비평태도(批評態度)에 대한 변석(辯釋) —8월 창작평(創作評)

전일 나는 모지상(某紙上)에서 <비평문학의 확립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비평문학의 확립을 방해하는 그릇된 비평적 경향을 지적하면서 나의 비평적 태도를 선명(宣明)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임화씨가 <문예논단의 분야와 경향>이란 논책 중에서 필자의 비평적 경향을 논하면서 해논문(該論文)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비판에는 나의 소론을 너무나 오해 내지 곡해한 점이 많았으므로 8월 창작평에 들어가기 전에 씨(氏)의 오해와 곡해를 지적하고 시정하여 나의 비평적 태도를 명백히 하여 두고자 하는 바이다. 그런데 씨의 해논문 중에는 개념의 혼란, 너무나 비문법적 문장의 구조, 이론의 중단과 비약으로 인하여 도저히 나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는 점이 많아 의식적으로 논란을 피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논란의 대상이 된 구절에도 씨의 논점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기 힘든 곳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언명하여 둔다.

임화씨는 나의 「그리하여 문예비평은 한 작품이 얼마만한 선전과 계몽의 가치를 가졌다거나, 어떠한 사상과 현실과 의도를 가졌다거나를 측정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나타난 사상과 현실이 얼마

만한 정도에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으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려던 그 작가의 의도가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실현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 그 작품이 얼마만한 정도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였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다음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문예비평작가의 의도, 선전, 계몽 등의 내용을(그 표현형식 공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여하히 작품 가운데 성취되었는가? 즉 소여(所興)의 묘사된 현실은 우선 객관적인 현실 과정과 일치하고 있는가? 장르는 묘사 대상에 적합한 것인가? 작품의 콤포지션은 그 사상을 과시하고 있는지, 혹은 그 사상을 애매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세세(細細)의 성격과 환경은 적당히 부합되고 그것은 함께 고도의 예술 보편화의 수준에 도달하였는가? 또 서술이나 회화가 설득력을 발휘할 만한 아름다운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예술적 표현형식의 평가의 기준이다. 가운데 실현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곳에 예술작품을 그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란 예술의 독자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말의 소재와 같은 이 어수선한 어구에서 나는 정확한 사상을 찾아내기가 꺾이나 힘들다. 그러나 그것에 좀 더 사상적 조탁을 가하고, 문장의 정리와 문법의 수정을 하고, 오식인 듯한 곳을 교정만 하면 그 근본적 사상은 씨가 인용한 나의 말에 표시된 사상과 결국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씨를 논란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에 이어서 다시 「그러나 김씨의 말과 같이 비평이 어떤 작자의 일정한 사상적·예술적 의도가 여하히 표현되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만 한정한다면 비평은 과학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더욱이 〈의도〉가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 안하였는가 실상 예술의 형식적 부면에 있어도 그 미소한 주관적인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전부(형식상으로도!)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였는가도 전기(前記) 〈상상〉, 〈감정〉과 공히 오히려 작자의 주관 의도의 범위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작자의 의도가 여하히 표현되었는가 하는 형식적 측면이라는 것은,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문학적 현실이 예술로서의 필요한 일체의 객관적 표현수단에 의하여 완성되었는가 안하였는가를 개시(開示)하는 것이다」 한 말에 대하여는 나는 씨의 나의 언설에 대한 너무나 심한 오해와 곡해를 시정할 의무를 느낀다.

대체 어찌하여 임화씨는 씨가 인용한 나의 문구 속에서 내가 비평을 「어떤 작자의 일정한 상상적·예술적 의도가 여하히 표현되었는가 하는 형식적 측면에만 한정한다」고 보고 있는지 실로 의아할 노릇이다.

한 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과 현실이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려는 그 작가의 의도가 얼마만한 정도로 실현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씨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형식을 내용에서 분리하는 것일까?

씨는 아마도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완전히 구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나의 언설을 형식과 내용을 구별하여 그 형식적 측면으로서만 작품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나를 형식주의자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씨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형식과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따라서 형식적 측면으로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형식주의자도 아니다.

예술작품이란 요소의 집단이 아니라 유기적 통일체이므로, 산 우리의 육체와 생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술작품의 내용

과 형식을 따로따로이 구별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작품은 그것이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한 완전한 통일체요, 형식과 내용의 두 요소의 결합체는 아니다. 형식이란 내용 그것에 의하여 스스로 산출되는 것이요, 내용이란 스스로 산출한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과 현실이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용해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것도, 비평을 형식적 측면에만 한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상과 현실은 그것이 그대로 곧 문예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상상력 속에 용해되어 사상은 한 산 구상체가 되고 현실은 한 감정과 성격을 가진 정태가 되는 것이며, 사상이 산 구상체가 되고 현실이 감정과 성격을 구현한 정태가 될 때에, 보통 우리가 내용이라고 부르는 사상과 현실이 스스로 그것에 적합한 형식을 낳아 그 형식에 다시 규정되어 이곳에 유기체로서의 작품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는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형식과 내용은 철저히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찍이 어느 기회에 말한 바이나 가치의 궁극적 원리의 문제에 저촉하지 않는 한, 즉 형식과 내용이 미적 관조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대상의 외면 및 표현의 형식과 내용적으로 평가된 것, 또는 감정적으로 경험된 심상을 의미하는 한 우리는 형식과 내용의 구별을 용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의 이 구별은 우리가 예술적 경험을 떠나서 실현된 이념을 반성하는 예술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념을 실현하는 문예 과학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작품의 전체적 경험을 잊지 않고 그 전체적 경험의 좀 더 풍부하고 강렬한 반복

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의의를 갖는 것이요,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가가 어떤 작품에서 얻은 전체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내용과 형식을 구별할 때 그 구별은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형식과 내용을 원리적으로 구별하거나 또 그리하여 단지 형식적 측정으로부터 작품을 비판하거나 내용의 측정으로부터 작품의 가치를 규정할 때, 그것은 위대한 과오를 범할 것은 물론 완전히 비평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내용이나 형식이나 그 한 측면만 볼 때, 그것은 작품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내용을 칭(誦)하고 형식을 말할 때에도 그 작품의 전체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나는, 나의 언설은 결코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여 비평을 형식적인 측면에만 한정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따라서 씨의, 「의도」가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 안 하였는가는 실상 예술의 형식적 부면에 있어도 그 미소한 주관적인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전부(형식상으로도!)는 아니라는 말은, 완전히 의미 없는 잠꼬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 없는 잠꼬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는 먼저 어구를 수정하고, 관념의 혼란을 지적한 후가 아니면 안 된다(어떤 사람의 언설을 비판함에 있어서 그의 전체적 견해와 주장을 비판하지 않고 그의 언설의 어느 구절을 적출하여, 그 속의 어구를 수정하고 관념의 혼란을 지적하는 이런 기술적 논란을 나는 되도록 피하려고 하며, 또 그러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임화씨의 이 본문(임화씨 이외에도 우리 평단에는 그런 논문을 쓰는 이가 얼마든지 있다)은 그 관념을 정리하고 어구를 수정하지 않고는, 아니, 때로는 그것을 수정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혼란하고 무질서하다.

이 어구의 수정과 관념의 혼란을 지적하는 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감행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이리하고야만 희미하고 위태하나마 씨의 견해와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리함으로써 씨에게 씨의 혼란하고 무질서한 두뇌를 반성시킬 기회를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인 것이다.

먼저 「의도가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라는 구절이다. 이는 씨가 인용하고 논란한 나의 언설에 대한 오해라고 하기 보다 전연 몰이해를 표명한 것이다. 나는 「의도」가 어떻게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런 말을 한 일도 없다. 아마 씨는 「사상과 현실이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라고 한 말을 이렇게 이상야릇하게 이해한 모양이나 이 말과 씨가 해석한 그 말과는 전연 그 의미가 다르다.

「사상과 현실이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 할 때에 내가 말한 「사상과 현실」이란 소재로서의 사상과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요, 소재로서의 이 사상과 현실이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는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얼마만한 정도로 그것들이 완전히 융해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만한 정도로 완전히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비평가의 한 임무라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씨가 곡해한 바와 같이 「의도가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의도」란 예술창작에 있어서 결코 소재가 아니므로 「의도가 작자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구현하지 못한 단어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다. 이곳에서 씨가 사용한 「의도」란 말이 내가 그것(사상과 현실)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하려는 그 작자의 의도가 얼마만한 정도로 실현되었는가 하였을 때의 그

의도라는 말인지 모르나 이 때에 내가 사용한 「의도」란 작가의 감정과 상상력 속에 융해된 사상과 현실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작가의 이상의 의미로서(이에 일언하여 두거니와 작가는 언제나 이 이상을 명료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또 그리함으로 지금까지 많은 오해와 과오를 낳아 왔으나, 작가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작가가 인상을 갖지 않고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료하게 의식하지 않고도 작품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점에 작품제작의 신비와 비밀이 있다) 사용한 것이요, 그것을 소재의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작품이란 소재로서의 사상과 현실이 작가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어, 그의 이상의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완전한 유기체로서 유출되는 것이라는 나의 주장은 형식과 내용을 구별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며, 비평에 있어서 얼마만한 정도로 그것들이 수행되었는가를 측정하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형식과 내용으로 구별 이전의 작품 그것으로서의 완성 정도를 측정하려는 나의 비평 태도가 결코 비평을 형식적 측면에만 한정하여 비평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씨는 앞에 인용한 씨의 말에 이어, 상상과 감정과 의도가 작가의 주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용의(不用意)한 말을 하여 나의 비평 태도가 예술의 형식적 측면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자기의 단안을 다시 스스로 부정하는 희비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도 자명하여질 것이다. 그것은 형식(원리적으로가 아니라 편의적으로 구별할 때의 그것의 의미로 사용한다)이란 작품의 표면 및 외면에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씨의 나에 대한 오해와 고통이 얼마든지 있

으나 차항(此項)으로 약속한 지면이 너무나 초과되었으며, 이것으로써
씨의 고통과 인식 부족이 얼마나 심하였는가의 일단을 보여 줄 수 있으
리라고 생각되기에 8월 창작평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 이하 연재 4-8회분(1936. 8. 9-14)은 판독불량으로 누락됨.

(《조선일보》, 1936. 8. 6-14)